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10월 26일(금) ..(음력 9월 18일).. Пятница 26 октября 2018 г. № 42(11680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0일(토) 한인문화센터에서 <마스터들의 도시>문화체험축제가 펼쳐졌다.  
(관련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주, 연초부터 수산물 획득량 58만4000여 톤

러시아 수산청 사할린-쿠릴지역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은 10월 15일을 기준으로 각종 수산물 584,661.22톤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에서 어획의 상위권을 차지한 어종은 명태, 연송어, 대구와 청어다.

지난 시기에 명태 어획량은 29만6000톤, 태평양 청어는 2만3300톤, 대구는 1만6900톤에 달했고 가자미는 1만300톤, 이명수(테르푸그)는 9.5톤에 달했다.

10월19일 기준 사할린주에서 연송어류 어획량은 118,776.12톤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주내 수산업체들의 어획활동으로 코류쉬카, 해삼류, 조개류, 새우와 대게의 어획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징어 어획량은 4000톤에 이르렀다.

### 주 미술박물관, 주명수 화가의 개인전 열려

10월 26일(금) 오후 6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주명수 러시아 공훈화가의 <변화의 시간> 개인 미술전이 열린다. 동포 화백의 70주년 기념으로 미술전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소개된다. 관객들은 <여름 회상>, <화분의 꽃들>, <형상의 탄생>, <사할린 원주민의 주거> 등 시리즈들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 올해 마약 범죄 500여건

지난 24일(수) 사할린주 검사국에서 니콜라이 라보브 검사국장의 주도로 법집행기관 지도자들의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마약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지난 8개월간 마약 판매 범죄를 포함해 마약 범죄 수 568건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624건이 형사사건으로 넘겨진 가운데 37 건에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참가자들은 마약 밀수 방지시스템의 질적 향상 제안을 하고 마약 복용자와 이들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특수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파헤치는 데 법집행부의 효율적 활동을 평가했다.

### 석유가스, 관리, 경제 등 주제로 청년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10월 24(수)-26(금)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에너지> 회사 주최로 제10회 청년전문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이에 <사할린-2>석유가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원들, 젊은 연구가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컨퍼런스는 재능있고 야망을 가진 젊은 이들이 유망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토론하고, 이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간 약 60개 발표가 진행됐는데 그중 절반은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야부르그·톰스크·나뎀·우렌고이·우파·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를 대표하는 <가스프롬>의 자회사 직원, 극동연방대학교·굽킨 러시아 석유가스국립대학교·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했다. 26일은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식과 경험 공유, 전문적 소통과 교류확대라는 점으로 요약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비상사태성 장관 사할린 방문

이번 주에 사할린을 다녀간 러시아 비상사태성 옌게니 지니체브 장관은 우선 주정부에서 겨울 준비, 비상사태 예측 및 비상사태 후속처리 시 기관 간 협력 문제로 조정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집행기관 지도부와 학자들도 참가했다. 웨라 셰르비나 주정부 수상은 사할린주에서 겨울 준비를 보고하면서 특히 쿠릴 이투루프섬의 고르니마를 겨울 준비 대규모 지원을 언급했다. 지니체브 장관은 사할린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겨울 준비가 꽤 있다고 결론짓고 지역 교통망에 주민 안전 확보 조직과 실시간 상황 파악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에게 통고하고 언론기관에 보고하길 권고했다.

24일(수) 비상사태성 사할린관리국 관계자들과 만난 장관은 이들에게 사할린비상사태국 국장 권한 대행으로 부임한 안드레이 안드레예브 중령을 소개했다. 안드레예브 중령은 사할린에 발령될 때까지 옴스크주비상사태국 부국장으로 활동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지니체브 장관은 마카로브구역에서 9월 '제비' 태풍 후속처리 작업을 한 우수 소방관들과 구조원들에게 러시아 비상사태성의 <비상사태 후속처리 작업> 공로훈장을 수여하고 그의 사할린 비상사태성의 베테랑들에게는 <구조 협력> 메달을 수여했다.

지니체브 비상사태성 장관은 <112 응급전화> 상황실도 방문했다.

(본사 기자)

## 사할린 산지 감자 내년 여름까지 확보

사할린주 주민들에게 내년 여름까지 유통시킬 산지 감자와 채소를 확보해 두었다고 주 농업부는 수확계획의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내 농장기업과 농촌산업체들은 감자 4만5,500톤을 수확하여 예상량보다 5천 톤을 더 거두게 되었다. 감자 수확은 작년에 비해 10% 더 증가했다. 농촌기업체들의 수확량은 <체플리츠너> 솥호즈(3만2천 킬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솥호즈>(2만7천 킬로), <아곤키>(2만7100킬로), 개인 농장 중에서는 탐카자호브, 로기노브 아르히포브 농장이 우수한 수확량을 보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솥호즈>는 555 헥타르 농장에서 1만 500톤의 가장 많은 감자를 수확했다. 채소 수확기가 되면서 채소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당근은 5800톤, 비트(사탕무)는 2700톤에 달했고 양배추 수확은 11월 7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작년보다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할린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사할린주, 새 이동진료차 5대 구입

지난 24일(수) 스미르니흐, 티몹스코예와 우글레고르스크 병원들에 이동진료차를 공급했다고 전해졌다. 그외 이동진료차 2대는 남부사할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장비들을 탑재한 이동진료차 안에서는 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호흡기 질환과 종양을 검진할 수 있다.

사할린주 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에 따르면 이동진료차를 통해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모든 것은 의료서비스 가용성 개발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작년에는 이와 같은 이동진료차에서 환자 6만 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8개월간 32개 의료팀들이 이 차로 800회 이동하여 3만 6000명의 환자를 검진했다. 이 특수이동진료차는 무엇보다 초기 질환을 확인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새고려신문

##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우리 현대인

좋아하는 일을 하여 행복하고 성공하는 한 남자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사할린 동포 3세인 춘(정) 알렉세이(40세)이다. 사할린 사회에서는 그는 <메가팔라스>호텔 총 매니저, 사할린주 씨름협회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돌린스크구역 소콜 출생인 그는 어렸을 때 부터 창작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도 그리고 학교 합창단에서 솔리스트였고 마을에서는 물론 주내 여러 문화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린시절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그 당시 많은 친구들이 생겨 현재까지도 그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이 그의 자산이라고 한다.

창작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가 선택한 대학은 하바롭스크 문화대학이었다. 그는 예술교육학과에 입학했는데 전공은 사회복지문화 분야 경영전문(매니지먼트)이었다. 그 당시 대학교 수진에게도, 학생에게도 아직 낯설고 새로 생긴 전공이었고, 경영수업보다 심리학과 교육학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사실 문화대학에 우연히 입학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많고 또 제가 경영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 웃으면서 춘 알렉세이가 입장을 설명했다.

그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낼 때 8명이 한 방을 썼는데 그중 행사 감독, 배우, 색스폰 연주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전공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대학시절 기숙사에 있던 피아노를 스스로 익혔다고도 한다. 창작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 부서의 매니저로부터 호텔 총지배인(총매니저)까지 3년간 걸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미 호텔과 레스토랑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대학을 졸업(1999년)하고 나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잘 알려진 레스토랑, 카지노 등을 포함한 <홀리데이>종합유희장에서 바 매니저 보좌로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 이 단지를 유럽 경영자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춘 알렉세이는 말한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관리자(총 매니저)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는 경영자로서 <메가폴리스> 레스토랑, <베르호프> 레스토랑, <파스텔>레스토랑 등 개업에 계약 작업을 맡았다. 프로젝트 처음 설계 작업부터 시작하여 영업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맡았다고 한다. 그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았다. '하얀 종이'로부터 시작하여 상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작업이 많은 경험을 안겨 주었다고 했다.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한 그는 어려운 만큼 경영자로서 재미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호텔 운영에 관심 생겨 12년 전에 <메가팔라스>호텔의 공사가 아직 끝나기 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큰 프로젝트도 해보고 운영지도자로 경험이 이미 있었지만 호텔이 처음이라 이곳에서도 한 부서의 일반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몇몇 동료들과 한국 호텔 경영전문가들의 경험도 연구하고 5성의 외국 호텔 관리시스템도 배웠다. 일본에도 가보고 모스크바와 한국에서도 직접 호텔관리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한 부서의 매니저가 고속으로 승진하면서 얼마 후에는 바, 레스토랑들의 관리인이 되고, 3년이 지나서 그는 호텔 총 경영인(관리자배인)이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파트너와 같으므로 <메가팔라스>호텔 안화자 대표 이사를 비롯해 그 당시 경영지도부가 호텔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그 후 5년이 지났다. 2년 반 전에 첫 경영자들이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그 5년간 호텔 서비스도 떨어지고 새로 창출할 메뉴 레시피도 없었고 호실 관리도 손이 필요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 간 친목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호텔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까,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경영팀을 꾸리자는 것이 우선적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기도 했지만... 직원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춘 알렉세이 총 매니저가 표명했다.

춘 매니저는 경영팀이 2년반 만에 1억5000만 루블리의 투자자 지원으로 호실, 모든 기술 시설 등을 수리하면서 새로운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이미 많은 경험을 얻은 이 젊은 남성이 호텔의 발전과 직원들의 좋은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씨름은 어렸을 때부터 즐기는 스포츠

알렉세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아로서 여러 스포츠를 즐겼다. 그의 아버지는 시네고트스크 출신이었지만 어머니는 포로나이스크구역 출신이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외가집 친척들이 사는 포로나이스크구역 위스토크 부락에 자주 가곤 했다고 한다. 알렉세이의 외삼촌 중 한 분이 특히 씨름을 즐겨 알렉세이도 씨름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다. 10살 때 그는 위스토크에 혼자 가서 성인 남자와 함께 씨름 연습을 했던 기억을 얘기한다.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 광복절 행사 때 시험경기에 참가하는 경험도 쌓으면서 씨름에 대해 생긴 남다른 애정은 현재 춘 알렉세이가 사할린에 씨름을 발전시키기 위해 씨름협회를 만들게 한 동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춘 알렉세이가 2000년대 초반부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씨름에 참가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관람객들은 씨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참가하는 아마추어 선수들도 꽤 많았다. 우리 민족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다. 상대방들의 역량도 보통이 아니어서 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알렉세이는 거의 해마다 수상을 했지만 처음부터 대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 들어 서야 그는 대상왕이 되었다. 대상으로 티비를 몇 대나 받기도 했다. 올해도 최우승을 하여 이번엔 송아지를 상품으로 받았다.

"이 송아지를 아버지 농장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소를 기

르시거든요."

사할린에서 전통 씨름 발전을 위해 얼마 전에 알렉세이는 인천 씨름협회 간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알렉세이는 씨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준비과정에 대한 서류, 씨름 교육법 등을 확보하고 주내 동양스포츠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격투기 스포츠를 하는 모든 연합회와도 손을 잡을 생각이다. 주 씨름경기도 열고 앞으로 국제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알렉세이 회장이 직접 아이들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이미 11월에 몇 명을 모아 한국에 가서 한 씨름대회에도 출전하고 씨름훈련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

계획을 이야기하는 알렉세이 회장에게서 사할린에 빨리 씨름을 정착시키고 싶어하는 의욕이 느껴졌다.

3자녀 가족의 행복한 가장

알렉세이는 3자녀의 행복한 아버지이다. 10세인 첫째 아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의 학생이고 3살 반의 쌍둥이 딸과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바빠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행사장에 데려갈 수 있는 행사 때면 꼭 같이 간다고 한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민문화센터 문화체험장에 식구와 함께 왔었다.

우정을 간직하고, 좋아하는 일과 즐기는 민족스포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춘 알렉세이의 모든 계획들이 성공하길 바란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점자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전용차량 구입

사할린주 특수점자도서관은 장애를 가진 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했다. 새로운 전용차량은 독자들의 집으로 책을 배달해 주고 문화행사에 특별히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주 문화고문서부에 따르면 전용차량 덕에 주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34명이 점자 책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전용차량은 우체국으로 가 책을 소포로 보내는 데 이용되고, 우체국에서는 이 책들을 주내 타지역에서 우편으로 도서를 대출한 27명의 독자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특수전용차량의 또 하나의 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약시를 가진 도서관 이용자들을 박물관 행사, 동물원, 극장, 영화관 등 기타 문화행사에 운송하는 것이다.

"사할린주의 문화행사와 도서관 이용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차량 구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다."라고 문화부 측은 덧붙였다.

참고

사할린점자도서관 이용자들의 수는 1377명이었고 도서관 장서는 6800권이 넘게 비치돼 있다. 게다가 도서관 이용자들은 시각장애인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

치된 컴퓨터, 인터넷 검색, 점자 프린터, 화면낭독기, 실물 화상기 등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장비 이용이 가능하다.

Сахалин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купила спецавтомобиль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чит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специ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приобрела автомобиль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овый транспорт позволит доставлять книги на дом читателям, а также вывозить людей с особ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на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благодаря спецавтомобилю книги специальных форматов на дом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34 инвалида по зрению, живущи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оме того, транспорт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доставки посылок с книгами в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откуда их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 27 читателям заочного абонемента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Еще одна функция приобретен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 вывоз слепых и слабовидящих чита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и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в музеи, зоопарк, театры, кинотеатры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культуры.

«Покупка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и социально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обретением для лиц с нарушениями зрения,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в обеспечении свободного и равного доступа к библиотечным фондам и культур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обавили в минкультуры.

Справка

Количество чит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для

слепых составляет 1377 человек. Фонд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68 тысяч единиц хранения. Также к услугам пользова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и - компьютер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ограммн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о зрению, выход в Интернет, брайлевский принтер, читающая машина, электронный видеувеличитель и другая тифлотехника.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에 장애물 지대 완공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 동부테니스 코트에 있는 종합실용스포츠단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완공은 10월 말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 복지 및 건축과 과장인 파벨 포포브는 "장애물 훈련장에 20개의 목재 구조물(각목으로 제작된 56개의 목표물)을 제작해 총 274미터 길이의 다양한 난위도별 두 개의 코스를 제시한다. 모든 목표물들은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특수용액을 넣어 제작되었다."라고 전했다.

주 중심의 시청 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스포츠 대상은 기술안전수칙상 7세 이상의 방문객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각 장애물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스포츠단지 시작점에는 전체 장애물 지대의 구조와 수칙이 제시된 지도가 배치돼 있다. 각각의 구조물 근처에는 연령제한을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

시청 측은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상당한 장애물 훈련장이 건설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은 극동지역에서 첫 번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면에 계속)

### 한인문화센터,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체험축제 펼쳐져

지난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가 추진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인들의 도시>문화체험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공연장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과 성인들의 호기심으로 가득찬 표정들로 흥성거렸다.

이날 사할린주 산하 주한국어교사협회(회장 이.코르네예와) 회원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예비교원 파견팀, 문화센터 소속 예술단체 등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홈스크 등지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한지공예, 한지 한복접기, 노리개 만들기, 한지 전등만들기, 한지 받침대 만들기 등을 펼쳤다.

일부 학생들은 태권도와 씨름 동작 익히기에 나섰다. 일부는 <하늘>사물놀이 팀원들의 지도로 북을 치는 법도 배웠다. K-팝을 좋아하는 학생 30여 명은 이 스타일의 춤동작을 익혀 1시간 반 만에 그동안 익힌 작품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손수 공예품을 만든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가져가게 되어 아이들의 기분은 몹시 좋아보였다.

활기찬 이날 문화센터 공간은 보기가 참 좋았다.

(취재: 이에식 기자)



### 사할린한인들의 애환과 속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

지난 18일 사할린을 제18기 고급관리자과정 항일독립운동 문화탐방 국외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표단(단장 주민규 서기관) 23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대표단은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에 세워진 사할린동포 희생위령 조각상,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 앞 사할린동포희생 위령비와 이중징용광부 추념비, 포차르스코예 27일 한인피살자 추념비, 사할린동포 문연고자 추념관 등 사할린한인 역사가 담긴 현장과 위령비를 찾았다.

19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강당실에 한국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새고려신문사 배 워 토리아 사장과 만나 사할린한인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날 대표단 단원으로 사할린으로 온 사할린한국교육원 박덕호 전 원장도 역시 사할린한인 강제징용 역사와 사할린한인과 고려인과 차이 점을 설명했다.



주민규 대표단 단장은 국외연수는 15일 시작하여 사할린에 오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이스크,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항일독립운동 문화탐방을 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에 온 이유는 사할린 동포들의 애환과 속 깊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런 힘든 역경을 겪었을까?', '앞으로 우리 리더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연수방문단은 20(토) 일에 귀국했다. (본사기자)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전호의 계속)

사할린 한인 또는 고려인 여러 분-재외동포법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도 추석은 잘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현재의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전통을 간직한 채로 추석이란 보름달이 그곳에서도 아마 높이 떠있었겠지요. 고향을 그리며.....

7월부터 사할린 한인 문제를 집필해왔습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아는 대로 기록을 한 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논문도 쓰고, 또한 이렇게 신문지상에 연재할 기회를 얻었으니 더없이 영광스러우나, 한편은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혹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잘못된 정보라도 전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번호로 지금까지의 연재를 끝내려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연재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기록으로나마 남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앞날에 소망하시는 대로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 1. 현재 사할린 한인 상태

사할린 한인이라고 하면 현재 사할린에 남아계시는 분들과, 이미 영주귀국을 하신 분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대략으로 현재 사할린에 남아계시는 분이 2014년 12월 말 현재 약 2만 7천 명의 한국계 동포, 그중 1세는 약 700여 명 정도라고 본다. 종전 당시에는 4만 3천여 명의 한인이 잔류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분이 1997년부터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4,393명이며, 그중 사망자와 역귀국자를 제외하면, 전국 29개 지역에 3천 여 명(2,825명; 새고려신문, 2018년 8월 10일자) 정도가 된다고 본다(새고려신문, 2018. 9. 28. 자 7면에서 재인용, 충북일보, 음성/김운수 기자).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연령/직업/학력 분포도를 필자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대략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생력이 강하여서 나름대로 자리를 지켜가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 그 후세들은 주로 모스크바로 진출하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숫자는 적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다. 그리고 그 후세들은 한국어도 그다지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그 결과 한국어를 하는 후세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그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한글학교에는 주로 러시아인들이 배우러 온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후손들도 한국어가 잘 되어야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가 되고, 한국과의 문화교류 등도 더욱더 활발해질 터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사할린에서 발행되는 '새고려신문'을 인터넷상에서 열심히 보면서 그곳 한인들의 활동상-한국 학생들의 사할린 방문, 또는 사할린 한인의 모국 방문, 예술인들의 교환방문, 기타 그들의 러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활동 상황- 등을 먼 곳에서나마 지켜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그들

이 잘 번성해가시기를,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교류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국적인 전통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한인이란 이름 속에 내재된 문화적 요인 탓일까?

한편, 현재 한국의 영주귀국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각 지역 대표들이 만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지난 9월에는 현재 한국에 계시는 영주귀국자 몇 분을 처음으로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다. 특히 영주귀국자들이 한국에 오신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한 그러한 경험 등을 하나의 역사로서 남길 기록물이나 잡지 또는 신문이 있느냐고 하니 아직 그런 작업은 하지 못하고, 그러한 작업을 후원할 만한 경제력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낸다고 한다. 만약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영주귀국하신 분들의 한국에서의 역사나 생활상은 먼 훗날 영주귀국 1세분들이 안 계시게 되면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 「사할린 연구소」라고 설립하여 그들의 역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들에 대하여 해야 할 책무가 그 후손들이 원한다면 영주귀국 내지 국적회복, 또는 국적확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복수국적도 인정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영주귀국하신 분들의 생활상도 또 하나의 역사인 것이다. 이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하여 그들의 흔적을 남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셔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단순히 한국에 모셔온 것만으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사할린에 계시는 한인이나 영주귀국하신 분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한국 정부에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사할린 한인이라고 하면 영주귀국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의 배상문제, 이중징용 문제, 우체국 저금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일본과 잘 협상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사할린에 남아계시는 분들이나, 한국으로 오신 영주귀국자분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을 한국 정부에만 기대하지 말고, 사할린 한인들이 스스로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이나 단체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그러한 과정 중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더욱더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 계시는 재일동포들은 현재까지도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다(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아; 재일코리아연호사협회 편저/박인동 옮김, 2010년, 역사 21).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й фермер Ильнам произвел фурор на кастинге шоу "Танцы на ТНТ"

На прошедших выходных состоялись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дни кастинга шоу "Танцы на ТНТ" в Москве, куда съехались танцоры со всей России. Одним из них оказался сахалинец Ильнам, он же Евгений Чеплыгин, который произвел на наставников и телезрителей огром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и услышал заветное "Ты в танцах".

Ильнам жив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занимается танцами последние семь лет. Параллельно он ведет фермер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а 37 гектарах земли — вместе с мамой выращивает картофель, огурцы, помидор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овощи. Весной и летом все свои силы он направляет именно на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а с приходом осени меняет фермерскую экипировку на стильную одежду уличного танцора.

Наставники пятого сезона "Танцев" Егор Дружинин, Татьяна Денисова и Мигель ищут в свои команды универсальных танцоров. Ильнам представил Сахалин танцем в стиле электро, но за семь лет сахалинец также освоил поп-панк, локинг, хип-хоп, вог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Это был танец из глубины моего сердца. Я представлял не только electro community, но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целом. Я хотел показать, чего стоя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танцоры. У нас свой стиль, и мы не раз доказывали, что Россия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а начинается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 сих пор не верится, что мой танцевальный путь привел меня в этот проект", — пишет Ильнам в своем "Инстаграме".

Наставники не стали долго мучить танцора и сразу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Татьяна Денисова сказала Ильнаму: "Ты в танцах".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ца также произвело огром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На голосованиях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телезрители отмечают именно электродэнсера и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своих голосов отдают ему. Сейчас Ильнаму пиш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 словами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болеют за него и надеются, что танцор все-таки попадет в команду к одному из наставников.

В воскресном выпуске шоу "Танцы на ТНТ" также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а еще од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Син родилась в Невельске, но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Девушк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журналист, но недавно она бросила профессию,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тить свое время танцам.

— Если бы мне год назад сказали, что я буду сидеть здесь в свете софитов, которые подчеркивают мои мешки под глазами, я бы не поверила, потому что тогда мой уровень танца объективно был очень посредственный. И 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зависит не от таланта, а от характера и амбиций. Главное это то, чего ты хочешь, и что ты для этого делаешь, — сказала Инна Син перед выступлением.

Наставники были восхищены авторской хореографией танцовщицы, ее образом и фигурой. Посл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омплиментов Инна Син услышала от Татьяны Денисовой "Ты в танцах".

(ИА Сахком)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художника Дю Мен Су «ВРЕМЯ ПЕРЕМЕН»

26 октября 2018 г. в 18: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Заслуженного художника России Дю Мен Су «ВРЕМЯ ПЕРЕМЕН».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 70-летию юбилею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созданные в разных жанрах — это и портреты, и пейзажи, и натюрморты, объединенные в серии: «Летн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Цветы в вазе», «Рождение образа», «Стойбище» и т.д.

Красоту родного Сахалина Дю Мен Су отражает в удивительных пейзажах, исполненных акварелью. Невероятны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находит своё постоянное развитие в эксперимента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изуа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ов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ехник. Например, в серии 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Стойбище» использованы элементы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таинственность и наполняют работы скрытым смыслом, задают особое настроение.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Время перемен» — это результат полуторагодовой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а, своего рода «дневник восприятия» событий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украсит музыка в исполн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ыканта, педагога, саксофониста Алексея А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декабря.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вели в СахГУ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ошли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условиях введ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педагога" и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Синтез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знаний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СахГУ.

Основную категорию слушателей составили учител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личного типа, вида и профи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терес к семинару, желание к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и постижению азов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проявили и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ще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50 человек.

Главной целью курсов и семинар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граммы определили формирование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дающих соврем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навык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эффектив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для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ащихся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в различных типах, видах и профиля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стандарт педагога —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й документ, содержа-

щий совокупность личностных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учителя, детализирует конкретные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которыми нужно владет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работнику, а также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его трудовые действия. За основу профстандарта взята система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ключающая обучение, воспит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Первые два раздела вполне понятно и объективно отражают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ителю, которы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должен знать свой предмет и обязан владеть методическими техниками и приема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нести его содержание до каждого ученика.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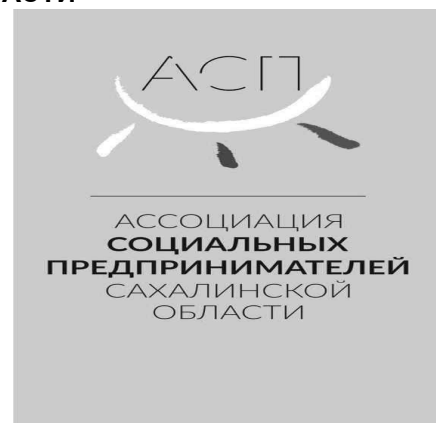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 **Сроки обучения:** с 02.01. 2019. по 05. 05. 2019.
-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6 мес./ 4 сессии



e-mail: Ase65@bk.ru  
https://vk.com/ase\_sr  
8962 154 88 65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 портфолио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 08 декабря 2018 г. по субботам:

10, 17, 24 ноября 2018, - с 10:00 до 14:00  
1 и 8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 с 10:00 до 14: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 7 924 481 4056 — Юрий Андреевич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оенные вертолёты США будут уведомлять КНДР о полётах вблизи ДМЗ

С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вертолёты должны будут заранее уведомлять КНДР о полётах вблизи пограничного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В рамках прекращения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т 19 сентября, в районе военной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и была создана воздушная буферная зона.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вблизи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JSA) в 2,4 км от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и находится американская военная база Camp Bonifas.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должна каждый раз при отправке вертолётов к этой базе уведомлять об этом Север. СШ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ражали недовольство установлением бесполётной зоны. Вблизи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ходятся два вертодрома.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22 октябр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ух Корей и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стороны затрагивали эту тему, и никто не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новых правил.

## 6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готовы работать в КНДР

Шесть из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венчурных компаний не против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ы в КНДР в случае актив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23 октября Корпораци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ышеуказанный ответ дали 60% из 267 компаний,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Среди причин возможной работы в КНДР 30,8% указали низкие расходы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26,6% - намерение выйти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При этом 31,7%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работать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КНДР, а 30,1% - в Кэсо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крупнейший в Азии фестиваль Халлю - BOF-2018

С 20 по 28 октября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крупнейший в Азии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Busan One Asia Festival (BOF-2018).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третий раз.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как уже известны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молодёжные группы, так и восходящие звёзды.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упили 11 групп, в том числе, EXO, Wanna One, Seventeen, NCT127, EXID, A.C.E и другие.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различные концерты, программы знакомства с молодыми исполнителями, а также сем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 21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ся BOF Park Concert, который можно было смотреть, удобно расположившись на траве перед сценой. И это лишь часть богатой программы.

## В ДМЗ открыта новая панорамная площадка Торасан

22 октября мэрия города П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вел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единственной в ДМЗ панорамной площадки Торасан, с которой можно лучше увидеть Кэсо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деревню Кичжондон на Севере. Мэр Пхачжу Чхве Чжон Хван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помнил, что с этой панорамной площадки видны не только Кэсонский комплекс, но и горы Сонаксан,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деревни Кичжондон и Тэсондон.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нное место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объект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ощадки началось в конце 2016 года. Общий бюджет проекта составил 8 млрд вон или 7 млн долларов. Торасан находится немного ближе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и на 12 метров выше, чем прежняя панорама. Кроме того, она гораздо просторнее старого сооружения, которо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ещё в 1986 году.

(RKI)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США пригрозили Сеулу санкциями за дружбу с Пхеньяном

Активные усилия Сеула по сближению с Пхеньяном стали вызывать все большее раздраж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который не намерен делать какие-либо уступ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ка та не пойдет на необратимые шаги по отказу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ША,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должны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ся и даже усиливаться, сделали ряд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Южной Корее по самым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днако облеченные в жесткую форму подобные "окрики вашингтонского парткома"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еоднозначную реакцию у южан, включая обвинения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То, что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расходятся по поводу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было уже давно очевидно.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эти противоречия союзники старались не афишировать. Но похоже, неутомимое же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аже подружиться с Пхеньяном в итоге разозлило Вашингтон.

Самым громким публичным окриком стало недавнее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который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ло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ан Ген Хва о то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ед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жду ведомствами и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мены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санкций "24 мая 2010 г.",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ввела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против КНДР после гибели корвета "Чхонан". Эти меры запрещаю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какие-либо новые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евером. Однако данные шаги не связаны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анкциями ООН, а потому при желании, с правов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еул вполне может отменить эти санкции, не дожидаясь согласия других сторон.

Но у Трампа было явно иное мнение на этот счет. "Они не сделают этого без нашего согласия. Они ничего не делают без согласия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 сказал он, комментируя сло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ра.

Такое публичное указание Сеулу "на его мес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недоумени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так как вопрос шел только о мерах,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целиком в юрисдикции Юга. Вместе с тем, официально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старались "притушить" скандал, сказав, что не считают возможным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а затем добавили, что Трамп, наверное, имел в виду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онсультац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до каких-либо шагов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спертной среде сильна точка зрения, что "Трамп, в свойственной ему прямой манере просто обрисовал ре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Глава МИД РК извинилась за спровоцированную шумиху, сказав, что оговорилась по поводу консультаций об отмене санкций, попросив понять ее иначе. Но такой грубый окрик из Вашингтона возмутил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в Сеуле, которые заявили, что Трамп вмеша-

ется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Южной Кореи и пытается диктовать свою волю друг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Впрочем, тут 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оизошла еще одна "стычка" межд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о поводу КНДР. По данным японских СМИ, которые затем подтвердили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источники,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накануне поездки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и его встречи с Ким Чен Ыном, состоялись два телефонных разговора между все той же главой МИД Юга Кан Ген Хва и госсекретарем США Майком Помпео. Как утверждают япон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Помпео, узнав о содержании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к подписа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единения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снижению мер по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сильно разозлился" и "использовал в разговоре с Кан жесткие выражения", назвав подход Сеула неприемлемым для США. Помпе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добные инициативы надо выработать совместно, то есть, говоря словами Трампа, "получать разрешение из Вашингтона".

Кан Ген Хва как могла увильнула от прямых ответов в ходе недавних слушаний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но в итоге в беседе с депутатами ей пришлось признать, что разговор по телефон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а у Помпео "были ряд вопросов по поводу соглашений в Пхеньяне, так как е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заранее". Хотя министр тут же поспешила добавить, что СМИ сгустили краски и "жестких выражений" от Помпео она не помнит,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факт беседы признала и не стала отрицать, что были разногласия.

Ранее военные США также озвучили свое, мягко говоря, не самое восторж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мерам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обороны РК и КНДР по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дписаны в ход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 Пхеньяне 19 сентября. В соглашении содержатся ряд шагов, которые напрямую касаются действий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Но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ее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контролирует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США в Корее, совмещающий должность Командующего силами ООН в Корее. Новый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США в РК, выступая на слушаниях в Сенате США, тут же заявил, что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Пхеньяне "контроль над ДМЗ остается в руках США", дав понять, что Вашингтон вполне может проигнориро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недавно опять же Командующий войсками США в Корее уже "показал зубы" Сеулу, не разрешив проезд через ДМЗ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става в КНДР. Специалисты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обирались провес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в КНДР, чтобы понять, что предстои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и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в случае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лавком войсками США в Корее нашел предлог, сказав, что "о проходе поезда не уведомили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хотя ранее это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причиной для подобных демаршей.

В Сеуле однозначно расценили это как выражение недовольства США межкорей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США стали пытаться со всех сторон "остудить пыл" Сеула по развитию связей с КНДР. На днях источники в банков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и парламенте Юж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что сразу посл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20-21 сентября в несколько ведущих банков страны напрямую позвон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США, занимающиеся вопросами сбора финан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й и пресече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терроризма. По словам корейских банкиров, американские чиновники устроили форменный допрос южанам на тему: "Какие у вас план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Сеуле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только из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в случае снятия санкций, но пока ничего не делают". На это американцы заявили, что "санкции надо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попросив их регуляр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состоя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Юга с Севером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источник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фина США обзвонили все банки Юга,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засветились" в изучен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а также ранее использо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проектов. Среди этих банков фигурируют Industrial Bank Korea, "Бан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реи" "КВ-Кунмин Бан", Shinhan, NH-Nonhyuop Bank и другие.

В МИД Южной Кореи и в сами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подобные прямые звонки минфина США в банки назвали "очень необычными", так как принято, что обычно свою позицию, включая "настоятельные просьбы" о соблюдении санкций, Вашингтон доводит до Сеула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после чего с банкирами беседу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На этот раз, похоже, в Вашингтоне решили, что им лучше всё разъяснить финансовым структурам Юга напрямую.

В финансовы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расценили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США банкам не предпринимать ничего, что могло бы нарушить санкции, в том числе американские, против КНДР.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ее состоя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сильно завязана на США, эт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были восприняты очень серьез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се это опять показало, что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и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ходиться в подходе к КНДР, а Вашингтон уже начал давить на союзника по самым разным каналам.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 Пханмунчжоме 15 октября Юг и Север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в конце ноября-начале декабря проведут церемонию начала соединен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железных и шоссейных дорог двух стран на западном и восточном участках. США же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никакие новые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невозможны, пока не будет явного прогресса по вопрос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6)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вую пятерку среди 85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по качеств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по итогам ежегод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 проводился совместно с научным и экспер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до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портале: <https://uslugi.admsakhalin.ru>, специалисты оцени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16 видов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услуг. Среди них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заключения и расторжения брака, оформление пособия на ребенка и выплат малоимущим, субсидий на оплату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выдача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охотничьих билетов.

– Проверяющие подавали документы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 оценивали, насколько точно органы власти соблюдают процедуры обработки заявлени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проверк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информации, доступности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и услуг, –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Попов,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Сомова оформила с помощью порт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на ребенка.

– Предприятие, где я работала, закрылось, когда на свет появилась Алиса. Я слышала, что полагается пособие на ребенка. Вот и зашла на сайт. Там удобный поиск, где можно сразу найти нужную тебе услугу и ведомство, которое е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ам все расписано: как получить, кому положено, кому не положено, что требуется, сроки. Нажимаешь «получить услугу» и переходишь на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Если щелкнуть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выходит информация с адресами и телефонами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Здорово экономит время. Для меня, как для мамы в декрете,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ониторинга федеральное ведомство оценивало полноту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изучало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ы заявления. В расчет бр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через региональный портал и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цифровой форме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писать его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электронной подписью. Также учитывалось, есть ли у заявителя возможность отслеживать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движени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а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услуги – оценить качество 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Еще один критерий, который проверяло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 указание на портале контактных телефонов, ответы на звонки по которым должны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е позднее двух гудков.

### 22 миллиарда сэкономи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 счет программы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Ее реал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к 2035 году сократить дотации на тарифы на тепловую и электрическую энергию. Программа по увеличению доли газа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презентована в Хабаровске по итог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чле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урса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два блока: первый – развитие малотонна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торой – развитие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структуры и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качестве 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Сейчас в регион завозится около 97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потребляемого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дотируют тарифы на тепловую и электрическую энергию. Ежегодно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ляется до 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приводит к ухуд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 основной вклад в загрязнение воздух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носит автотранспорт.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необходимо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который гораздо дешевле. Программа,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нами, несет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ффекта – существенную эконом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Реализация документ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К 2035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СПГ мощностью 1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и газозаправочную сеть, ежегодно отпускающую потребителям 36 миллионов кубометров в год. На сжиженный газ должны перейти ряд котельных области, 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 14 тысяч единиц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В результате снижение бюджетных затрат на дотирование тарифов составит внушительную сумму – 2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акже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ходы от налогов – около 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будут созданы 2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количество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в атмосферу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ся – на 14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же работает по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развитии малотонна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ПГ и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структуры, то сегодня по этим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лиде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ы находимся на одном уровне с центральными субъектами России, где программа переход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стартовала раньше на 3-4 года. А реализация планов позволит нам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ить лидерство, но и получить реа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 считает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увеличившийся ассортимент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 ежегодный смотр-конкурс, который уже более 10 ле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достижения остров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этом году эксперты выберут лучшую икру лососевую баночную, слабосоленую подкопченную кету, тихоокеанскую сельдь, консервы из скумбрии и печени трес-

ки.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тестируют бифидок, ряженку, адыгейский сыр и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Из мясных изделий на конкурс попадут колбаса «Краковская» и «Чайная», а из хлебных – батон нарезной, хлеб «Украинский» и хлебец «Докторский».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к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рекламе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размещать его на упаковке и представлять продукты-победите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100 лучших товаров России».

–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 знач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лагодаря ему уровень качества,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на рынке области, улучшае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Желание предприятий и 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обеждать и быть лучшими в области становится серьезным мотивом для обновлен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в декабре 2017 года заключе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НО «Роскачество». Он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ен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продукци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атон «Нарезной» ЗАО «Долин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 – одного из старейших предприятий пищевой индустрии, который в эти дни отмечает 70-летний юбилей, признан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одуктом повышенного ка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оходит в три этапа: контрольная закупка в сахалински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дегустация продукци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выставление оценок, смотр-конкурс лучших товаров.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все образцы лишаются узнаваемой упаковки и получают цифровой код. Каждый эксперт выставляет продуктам баллы в своей дегустационной карте.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новится продукт, набравший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ценок.

В состав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раслев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профсоюза работнико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офсоюза «Торговое единство».

– Эксперты,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дегустации, проходят сенсорное обучение. Нас учат, как и что пробовать, на каких органах чувств мы можем ощутить запахи и вкус, – пояснила эксперт по молоку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ведущий инженер органа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ООО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сертификации», Екатерина Счастливая.

Главными задачами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определение местных товаролидеров, а также широко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х товарах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имулируют предприятия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качества выпускаемой продукции, расширение ее ассортимента, обновление и модерниз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бед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ачества»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3 ноябр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5)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крики из Вашингтона, как минимум, не всегда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в Сеуле.

Южнокорейц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и на еще одну характерную деталь, которая ложится в общий контекст расхождений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ак сообщало издание "Чосон Ильбо", отныне граждане Южной Кореи вошли в чис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50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более тщательную проверку при желании посетить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на военных базах США в Японии. В число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раньше уже вошл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Китая, КНДР, Ирана, Афганистан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но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впервые туда попали и южнокорейцы, состоящие в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сами имеющие военные базы Америки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йсками США в Японии отказалось объяснять этот шаг, но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отныне граждане РК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верку.

Если подводить итог, то, как и предсказывали ранее эксперты, расхождения жесткой линии Трамп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и стрем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стали все более очевидны. Если смотреть на действия Муна, то он в на-

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ытается совместить две очень разные, если не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друг другу вещи: сохранит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и как минимум видимость союза с США, но при этом еще суметь разви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ходе своих визитов в США Мун Чжэ Ин постоянно говорит то, что хочет слышать Трамп, 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 с Ким Чен Ыном подчеркивает единство двух частей Кореи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Сеул недавно достаточно сильно уступил Вашингтону в ходе пересмотра дву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что, по словам аналитиков, стало попыткой Мун Чжэ Ина "купить" хотя бы сдержанную реакцию Трампа на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 Пхеньяне.

Примерно как часть этой же стратегии – делать мелкие, "приятные" США уступки, демонстрируя по максимуму солидарность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обмен на относительную свободу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хеньяном – можно расценить и недавний инцидент с задержанием властями Южной Кореи в порту Пусан российского сухогруза "Севастополь". Власти США обвинили

судно в незаконных поставках нефти в КНДР и ввели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омпании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удна. При этом четки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нарушений Вашингтон не предоставил. Однако Сеул задержал судно, но при этом не стал выдвигать своих претензий. В итоге, после жесткой реакции Москвы, вызова после РК в МИД РФ, судно отпустили. Сеул, весьма странным поведением с сухогрузом, попытался показать США, что он "поддерживает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КНДР", 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а ровном месте спровоцировал определенное осложн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где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подоплеку метания Сеула между союзом с США и желанием добиться прорыва с КНДР. Но теперь, после публичных окриков из Вашингтона,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США не собираются "покупаться" на попытки задобрить их, а требуют от Сеула неукоснительного следования в фарватере политик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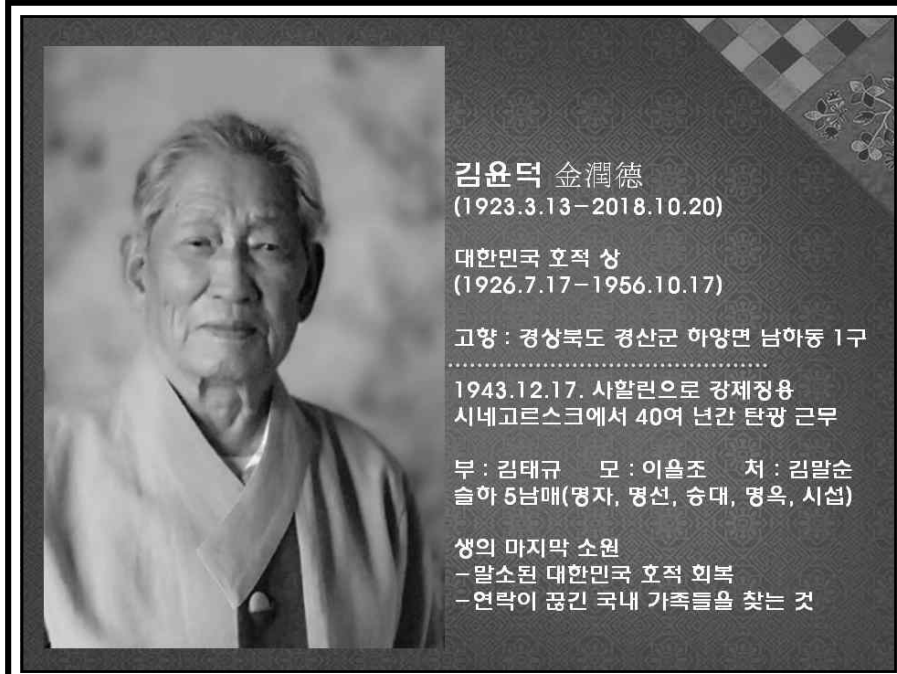
В Сеуле надеются, что смогут найти выход из этого шат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ведя вместе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когда те договорятся, позволив Сеулу со-

хранить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обеими странам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ун Чжэ Ин сейчас так активно проявляет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посредника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второго американ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удя по промежуточ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пока Муну удается "пройти по краю", и саммит США и КНДР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стоится. Проблема только в том, что КНДР и США требуют друг от друга уступить первыми, а это чревато новой конфронтацией. Если же вторая встреча Ким Чен Ына 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граничитс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и уровня саммита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то уже будет трудно избежать конфронтации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Если в первый раз общие фразы и отсутствие четк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целом удалось "затмить" пиар-эффектом от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личной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США и КНДР", то теперь одного этого будет мало. А потому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после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вынуждена выбирать между своими двумя очень противоречивыми и, возможно, нереалистичными для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линия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США пригрозили Сеулу санкциями за дружбу с Пхеньяном



**김윤덕 金潤德**  
(1923.3.13-2018.10.20)

대한민국 호적 상  
(1926.7.17-1956.10.17)

고향 :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면 남하동 1구

1943.12.17.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시네고르스크에서 40여 년간 탄광 근무

부 : 김태규 모 : 이윤조 처 : 김말순  
슬하 5남매(명자, 명선, 승대, 명옥, 시섭)

생의 마지막 소원  
-말소된 대한민국 호적 회복  
-연락이 끊긴 국내 가족들을 찾는 것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김윤덕 옹께서 향년 95세, 2018년 10월 20일을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조문**

Приношу сво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Желаю, чтобы, оказавшись на небесах, Вы ходили по родной земле в Кёнган столько,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Вашей душе.

**Квон Джонг Сун (Куми)**  
\* \* \*

한국에서 가져오셔서 몇 년을 고이 모셔둔 소주를 귀한 손님이(킨) 왔다고 선물로 주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사할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태희(지구촌동포연대) 올림**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то, что подарили нам, «дорогим гостям(KIN)» соджу, которую привезли из Кореи и хранили несколько лет.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жизни еще больше людей смогли узнать о Сахалине. Спасибо. И простите. Покойтесь с миром.

**Ку Тхэ Хи(Сеул/KIN)**

눈물 많았던 한세상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소서...

**김지연(사진가) 올림**

Молюсь, чтобы теперь Вы стряхнули с себя следы мира, полного слез, и, заново родившись в лучшем мире, обрели счастье. Покойтесь с миром...

**Ким Джи Ён(фотогра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에게 아리랑을 불러주시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야 평생 고통스러운 육신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소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겨레아리랑연합회 회원 일동**

Приношу свои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До сих пор помню, как Вы при нашей последней встрече пели нам «Ариран». Молюсь, чтобы хотя бы сейчас Вы покинули тело, полное душевной боли, и заснули спокойным сном. /Строки из песни «Ариран»/

**Члены Общества Хангёре Ариран**

김윤덕 할아버님, 늘 넉넉한 웃음으로 대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디 좋은 곳 가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숙하(국립중앙의료원, 사할린초청진료 TF팀장) 올림**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바랍니다.

**곽혜선(국립중앙의료원, 전 병동 수간호사) 올림**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정정하시고 언제나 밝고 한국을 사랑하셨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김윤덕 할아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지(국립중앙의료원, 병동 간호사) 올림**

강제징용으로 고향을 떠나 강인한 삶을 이어오신

어르신, 이제 영혼이라도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산천으로 귀향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편히 떠나소서

**김혜자(국립중앙의료원, 병동 수간호사) 올림**

부디 좋은 기억만 가지고 편안하게 떠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서희(국립중앙의료원, 사할린초청진료TFT) 올림**

김윤덕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YTN(김이향, 이현수, 류종원) 배상**

Не забудем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ую оставил дедушка Ким Юн Док.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YTN (Ким И Хянг, И Хён Су, Рю Джонг Вон)**

그 평생이 다층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산 증인이셨던 김윤덕 어르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이 영면하소서.

**방일권(교수) 올림**

Буду помнить господина Ким Юн Док, вся жизнь которого стала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ущерба 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усть земля Вам будет пухом.

**Профессор Пан Иль Гвон**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음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고인을 비롯한 사할린 선조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민성식(PD) 올림**

Я слишком поздно узнал... Простите...

Я чувствую больш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так как смог последним запечатлеть покойного на камеру. Постараюсь смонтировать хороший сюжет, чтобы потомки не забыли рассказы своих предков, включая покойного, и показать его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людей.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Продюсер Мин Сонг Сик**

어르신께서 차려주셨던 따뜻한 밥상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마 가고 싶으신 고향 마음껏 굶어 보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슬아(KBS다큐세상 PD) 올림**

작년 이맘 때 할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너무나 정정하고 밝은 목소리에 통화하는 내내 제 마음이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를 통해 할아버지 소식을 종종 접할 때마다 조만간 할아버지를 꼭 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오래전 헤어졌던 부모님과 하늘에서 만나셨죠? 억지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할아버지의 소원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영송(서울) 올림**

(8면에 계속)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страивают полосу препятствий**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сточнее теннисных кортов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боты планируют закончить к концу октября.

-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включает 20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56 элементов из бруса) 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вухстороннюю тропу с различными уровнями сложности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274 метра. Все элементы об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м раствором, который увеличит срок службы конструкций,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ектор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арка Павел Поп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посетителям от семи лет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тех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ждое препятствие будет пронумеровано. В начале комплекса расположится карта с общей схемой полосы и правилами. Около каждой конструкци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таблички с возрастным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 мэрии добавили, что па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пар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де для свободного доступа будет сконструирована такая протяженная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사할린에서 여권 수여식에 참가자 선발 시작**

<애국자와 시민> 중앙 프로그램과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다!>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지역에서 학업, 스포츠, 예술활동, 사회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14세의 국민에게 여권 수여식에 참가자 선발이 시작되었다. 선발대회에는 학업, 스포츠, 예술 부문에 우수함을 보여주는 경력과 <러시아 연방 국민이 되는 의미>란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는 영상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여식은 전 러시아 지역에서 12월1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청년연맹의 이같은 행사는 15년째 진행되고 있다.

<애국자와 국민> 프로그램은 1년 내내 러시아 각 지역에서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다!> 행사 실시를 하고 있다. 만 14세의 청소년들은 이 행사에 참가가 가능하고 러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을 초대할 여권 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갈 수도 있다.

참가 신청서는 11월 5일까지 konkurs.patriot@ruy.ru 전자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러시아청소년연맹 측은 참가자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러시아 시민이다!> 전국행사 참가에 대한 상세정보는 8(4242) 47-29-88 전화로 문의 바람.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отбор участников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вручения паспор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цент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атриот и гражданин" и акции "Мы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 отбор участников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вручение паспортов 14-летним гражданам,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тличные успехи в учебе,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заключается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портфолио, отражающего успехи в учебе,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е видео-размышления на тему: "Что значит быть гражданин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ручение пройдет 12 декабр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Данная ак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ежи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более 15 лет. Программа "Патриот и граждани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ализацию акции "Мы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и.

Каждый ребенок, достигший 14 лет,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й акции и, возможно, попасть в Москву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вручение паспортов, куда приглашают самых достойных со всей России.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до 5 ноября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konkurs.patriot@ruy.ru.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сообщает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астии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Мы —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8(4242) 47-29-88.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힘 없는 조선의 '김윤덕'으로 태어나,  
'내야마 긴준도꾸'로 화태에 끌려와서,  
'니플라이'로 평생을 사신 할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반세기 만에 밟아,  
목놓아 부르던 어머니도 뵈었지만..  
애끓는 마음 고향산천에 남겨두고,  
내 새끼들만큼은 부모와 떨어져 살 게 할 수 없어 영주귀  
국도 포기하신 할아버지.

그의 일생이 곧 사할린 한인사이기에,  
우리는 그를 사할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아픈 우리역사의 산 증인이  
역사의 저 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집니다.  
남은 우리가 유독 아픈 이유는  
아직도 그가 남아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기 때문  
이겠지요.  
아직도 우리가 해드린 것이 너무 없기 때문이겠지요.

지위고하 나이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따뜻하고 겸손했던,  
평생 남에게 폐 끼칠 줄 모르던  
정직하고 부지런한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다시 뵈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요.  
사랑합니다.

Дедушка, который родился в бессильном Чосоне под именем 'Ким Юн Док',  
Которого привезли на Сахалин под именем 'Нэяма Кинджундоку'  
И который прожил всю свою жизнь под именем 'Николай'.

Хотя лишь спустя полвека смог ступить на родную землю,  
о которой мечтал во сне,  
И встретился с мамой, которую громко звал..  
Дедушка оставил свое обеспокоенное сердце на Родине  
И отказался от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так как не мог  
остав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и жить вдали от них.

Его жизнь – это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считали его символом Сахалина.

Но внезапно он прощается с нами.  
Жив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нашей печальной истории  
Исчезает по ту сторону истории.  
И причина, по которой нам, оставшимся здесь, так  
больно,  
В том, что еще осталось столько всего недосказанного,  
что мы должны услышать.  
И в том, что мы до сих пор ничего для него не сделали.

Независимо от ранга, возраста и пола  
Он относился ко всем с душевной теплотой и  
скромностью,  
Он жил, не доставляя кому-либо неудобств,  
Был честен и трудолюбив.

До свидания.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вновь!  
Обещаю, что до нашей новой встречи я буду жить так,  
чтобы перед Вами не было стыдно.

**С любовью.  
Ким Соня**

2018년 10월 20일 김윤덕 옹께서 9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신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1938년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일본이 한인들을 사할린에 강제동원시켰습니다. 그후로 80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현재 강제징용 증인들은 사할린에 거의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일(토) 시네고르스크에 계시던 김윤덕 어른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25일 할아버지를 보낼 때 하늘도 같이 울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심신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7면의 계속)**  
 Помню, как было радостно на душе, когда я разговаривала по телефону с бабушкой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лыша такой бодрый голос.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узнавала новости о бабушке через статьи, ждал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встречи, но было очень больно услышать печальную новость. Теперь там, на небесах Вы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ителями, с которыми давно расстались? Желаю проводить вместе с ними счастливое время. Искренне молюсь,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сбылись желания бабушки,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осуществиться при жизни.

**У Ёнг Сонг (Сеул)**

조금 더 일찍 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길게 남을 듯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양에서 학교다니 류종원 올림**

다시 만나뵈려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머무실 그곳에서는 경산의 따뜻한 봄볕과 더위를 만끽하시기를.  
그리워하신 부모형제와 만나 얼싸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명지(전 국제보건의료재단) 올림**

Часто было тяжело на душе, так как не могла сдержать обещание еще раз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ами. Желаю Вам в ином мире получа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весеннего солнца и жары Кёнгсан. Буду молиться, чтобы там Вы встретились и обнялись с родителями и братьями, о которых тосковали.

**Пак Мёнг Джи(бывший сотрудни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Кореи)**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김태희(서울) 올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재우(디자인플러스) 올림**

김윤덕 할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 여행을 갔을 때 찾아뵈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라고 저희들을 붙잡으시던 손길도 생생합니다.

김윤덕 할아버님 한 많은 삶의 고통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내세에서는 강제징용도 이산의 아픔도 없는 행복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문영숙(작가) 올림**

реклама

**САХН.СОМ**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